

나주시 에너지 강소특구 2단계 확정

내년부터 5년간 200억원 투입

고효율 태양광 기술 실증 이전

차세대 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 육성

나주시가 에너지산업 특화를 위해 역점 추진해 온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육성사업 2단계로 진입한다.

나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해 온 강소특구 육성사업 1단계 종합 평가에서 사업 성과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2단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에 소재

한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을 소규모·고밀도 연구개발(R&D) 배후 공간으로 지정·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2단계 사업은 강소특구 특화 분야인 친환경 고효율 태양광 발전과 연계 안정화, 차세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기술 핵심 기관으로 삼아 나주혁신산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구개발 배후 공간으로 육성 중이다.

지난 4년간 1단계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 143건’, ‘연구소·기업 24개 설립, 창업 69건’, ‘신규 일자리 471개 창출’ 등의 성과를 냈다.

여기에 한전이 보유한 기술에 기반을 둔 태양

광, 신재생 O&M(운영·유지보수), ESS 수요 기업 맞춤형 기술이전 활성화에 힘입어 3560억원 규모의 누적 매출을 달성하는 등 전국 14개 강소특구 중 가장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단계 사업은 더욱더 실질적인 기술 실증과 기업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기술 실증 구축 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 특화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 R&D,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강소특구 2단계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 공급기관 중심의 전 단계 사업에서 더 나아가 전국 강소특구 간 협력과 지역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자생형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어르신 걷기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관절 운동·낙상 예방 실습 중심 진행

장흥군이 걷기지도자 역량강화에 나섰다. 장흥군은 지역사회 걷기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고령 인구 증가와 무릎관절증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걷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절·근육 운동과 낙상 예방 운동, 통증 및 체형

관리 운동 등 실제 고령자 대상 걷기 지도에 필요한 실습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발목, 무릎, 허리, 목 등 주요 관절 운동법과 함께 튜빙밴드 및 마사지볼 등 도구를 활용한 교정 운동법도 함께 다뤘다.

장흥군 관계자는 “걷기 프로그램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 보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고인돌유적지로 앵두 따러 오세요”

5일까지 앵두수확 체험 행사

입장료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화순군이 오는 5일까지 화순고인돌유적지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앵두 따기 체험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유적지 내 3300주 가량의 앵두나무에서 직접 앵두를 수확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체험은 입장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4일과 5일에는 화순군 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단체로 참여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지역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자연을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반갑다”고 말했다.



고인돌유적지 앵두 과원에 빨갛게 익은 앵두.

최기운 화순군 고인돌사업소장은 “화순고인돌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과 자연, 역사가 어우러진 공간”이라며 “앞으로

도 아이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함평천지전통시장 새단장

환경개선 사업 마무리 재개장

함평군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함평천지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은 냉동·냉장고, 상품진열대 등 판매시설 구입 및 제작 등 점포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며 상인들은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다는게 함평군의 설명이다.

서성도 함평천지전통시장상인회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관심



최근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함평천지전통시장.

<함평군 제공>

을 갖고 지원해 주신 군에 감사드린다”며 “함평천지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과 협력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은 “환경개선사업은 시장 전체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함평천지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 3000억원 목표 국·도비 확보 ‘총력’

부서별 공모 추진상황 보고회

강진군이 최근 ‘2025년 국·도비 확보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국·도비 확보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도비 3000억 원 확보’라는 목표 아래 각 부서의 공모사업 준비 상황과 응모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군의 재정 자립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회의에서는 각 부서장이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공모 및 건의사업을 개별 보고하고, 미응모 사업에 대해 사유와 애로사항에 관한 내용도 공유했다.

또 부처, 전남도 공모사업 응모 현황 보고와 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부서별 추진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군의 공모 역량을 높이는데 주안점

을 뒀다.

국도비확보팀은 앞으로의 국·도비 확보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부서별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응모 시 애로사항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강진군은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전략 재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국·도비 확보는 단순히 외부 재정지원 확보를 넘어 강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부터 하나씩 성과를 쌓아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기획에서 성과까지’ 전 주기적 국·도비 확보 전략을 수립·운영해 국·도비 확보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에 귀농하면 ‘3억원+α’ 용자 지원

창업 3억·주택자금 7500만원

장성군이 귀농인에게 최대 3억원 이상의 자금을 용자 지원한다.

장성군은 ‘귀농농업창업자금’과 ‘주택 구입 지원사업’ 용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용도로 사용하는 ‘귀농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원을 연이자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용자에 준다.

‘주택 구입 자금’은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가구당 최대 7500만원을 창

업자금 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65세(1959년 1월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농촌 외 지역(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장성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연내 장성 전입이 예정돼 있고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전입 전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를 입니다.